http://dx.doi.org/10.5392/JKCA.2013.13.07.386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분석: 스키 참가자를 대상으로

Recreation Specialization According to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Levels of Skiers

황선환[*], **김종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대학교[**]

Sunhwan Hwang(shhwang@uos.ac.kr)[*], Jongho Kim(ssere1@snu.ac.kr)[**]

요약

본 연구는 스키 참가자들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와 여가제약 협상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위치한 4개 스키 리조트를 방문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군집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374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활용하는 참여자는 강도와 정도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하위요인별로 일원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가제약 협상은 전략을 활용하는 강도와 정도에 따라 상, 중, 하의 3단계로 분류가 되었다. 둘째,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전체평균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과거경험, 인생의 구심성, 경제적 투자 등의 전문화 하위요인에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셋째, 여가제약 협상전략의 적극적인 활용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여가제약 협상 |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 스키 참가자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recreation specialization levels based on the levels of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on recreation specialization. A total of 374 skiers Kyonggi and Kangwon provinces was selected using the cluster sampling method. All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based on the levels of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and one-was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kiers were divided into 3 groups(high, middle, low) by the K-mean cluster analysis.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past experience, centrality of life, financial investment, and overall recreation specialization based on the levels of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Finally, leisure constrain negoti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recreation specialization.

■ keyword : |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 Recreation Specialization | Skiers |

접수일자 : 2013년 05월 14일
수정일자 : 2013년 06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6월 24일
교신저자 : 김종호, e-mail : ssere1@snu.ac.kr

I. 서 론

스키는 연령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여가스포츠 활동으로서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관계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종목이다[18]. 또한 스키는 2000년대 이후부터 상류계층을 위한 귀족스포츠에서 벗어나 대중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9].

이렇듯 스키는 현대인들의 대중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지만 눈 위에서 장비를 착용하고 빠른 스피드를 즐기는 스키의 종목 특성상 부상 위험, 높은 비용, 기술 부족, 낮은 접근성 등은 스키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6].

하지만 스키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이용하여 당면한 제약을 극복하고 여가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18][20][22][26].이러한 여가제약 협상전략은 여가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개인의 행동적, 인식적 전략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노력을 뜻한다[5].

또한 여가제약 협상전략에 있어 협상의 의미는 적응이나 조절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여가제약 협상전략은 여가제약 요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처해진 상황에 적응하거나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3].

즉, 현재 스키를 즐기거나 과거 스키를 경험한 사람들은 스키 참여를 저해하는 특정한 제약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그 상황에 적응하여 결과적으로 스키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개개인이 경험하는 제약의 강도와 종류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여가제약 협상을 통해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해 본다면 개인이 경험하는 여가제약은 그 강도와 정도가 동일하지 않으며, 여가제약 협상 역시 개인이 경험하는 강도와 정도가 다를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여가제약 협상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6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들이 여가참여, 진지한 여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가제약 협상과 다른 이론들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1][4][5][6][10].

최근 들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 분석[13], 여가활동 참가정도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11] 등 요인들의 강도 및 정도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그 수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하부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협상 전체의 강도와 정도로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전략을 활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세분화한 연구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가제약 협상을 강도와 정도로 나누어 적극적, 그리고 소극적으로 협상전략을 사용하는 개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협상전략에 따른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까지의 여가제약 협상 연구는 여가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나 여가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가참여 촉진을 위한 방안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 여가제약 협상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전문화 단계에 이르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개인이 여가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기술 및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개념으로서 Bryan[19]이 처음으로 그 개념을 제시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8].

특히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는 전문화의 개념 및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와 참가기간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14]. 황선환과 김미량[12]의 연구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김미량, 김동제, 권창기[3]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경력, 빈도, 몰입수준, 기술수준 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McFarlane[25]은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 전문화 정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으며, 황선환 외[14]는 참가기간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기간에 따라 전문화 수준이 증가 또는 감

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참가기간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연구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동일한 기간 동안 여가활동에 참가하더라도 이를 통한 개인의 경험은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참가기간뿐만 아니라 전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도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참가기간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에서 나아가 개인이 여가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인 여가제약 협상의 수준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현상이 잘 나타나는 스키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여가제약 협상의 수준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스키활동 참여에 있어 여가제약 협상 수준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본 연구는 그 동안 진행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1.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과거경험 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2.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인생의 구심성 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3.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경제적 투자 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스키에 참가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군집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에 위치한 4개 스키 리조트(경기도 1개, 강원도 북부, 동부, 중부 각각 1개 리조트)를 방문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각 리조트별 100부씩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26부를 제외하고 총 374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황선환 외[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를 재이용하여 새로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은 18세부터 52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20대가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가 13.6%, 10대가 13.4%, 40대가 6.4%, 50대 이상이 1.3%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51.9%, 여자가 48.1%로 비교적 균등한 비율을 보였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23.5%, 대학원 졸업 5.1%의 순서로 나타났다. 평균 스키경력은 3.73년, 스키시즌 중 평균 주 2.48회 스키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 평균 참여 시간은 4시간 반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374)

구분		사례수(n)	백분율(%)
연령	10 – 19	50	13.4
	20 – 29	244	65.2
	30 – 40	51	13.6
	40 – 50	24	6.4
	50대 이상	5	1.3
성별	남	194	51.9
	여	180	48.1
학력	고등학교졸	88	23.5
	대학교졸	267	71.4
	대학원졸	18	5.1
스키 경력	1년 이하	104	27.8
	1 – 3	128	34.3
	3 – 5	77	20.6
	5 – 7	22	5.8
	7년 이상	43	11.5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4문항, 여가제약 협상 24문항,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10문항으로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용한 설문지의 구체적인 구성 지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스키참여 정도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 여가제약 협상

여가제약 협상은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어떠한 노력을 통해 제약을 극복하는지를 나타내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여가제약 협상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Jackson & Rucks[21]가 최초 개발하고 Loucks-Atkinson & Mannell[24]의 연구에서 재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김경식, 황선환, 원도연[2]이 한국 실정에 맞게 변환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지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동의함'(5점)까지 5점 Likert-type 방식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6문항), 여가활동비 마련 및 시간관리 노력(7문항),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3문항),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3문항),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2문항),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가제약 협상 문항의 예로는 "나는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여가활동에 참가하려고 노력한다"(요인1), "나는 여가활동을 위해 저축하려고 노력한다"(요인2), "나는 스스로 여가활동의 강도를 조절한다"(요인3), "나는 여가활동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한다"(요인4), "나는 여가활동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려고 노력한다"(요인5), "나는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유사한 종목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한다"(요인6) 등이 있다.

2.3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McFarlane[25]의 연구에 사용된 척도를 황선환, 최홍석, 한승진[17]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3요인 10문항의 척도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스키 경력, 참가횟수, 몰입과 기술수준 등을 평가하는 과거 경험(5문항), 스키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련 기사 검색 정도를 평가하는 인생의 구심성(3문항), 스키 관련 물품의 수와 투자비용을 평가하는 경제적 투자(2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스키 기술 수준"(요인1), "나의 인생에서 스키가 차지하는 비율"(요인2), "소유하고 있는 스키 관련 용품의 수"(요인3)" 등이 있으며, 각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과거경험 .902, 인생의 구심성 .868, 경제적 투자 .883,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948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Q값(χ^2/df)이 4.88로 기준보다 높았으나 비교적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CFI=.98, TLI=.95, NFI=.97로 적합도 기준에 충족하였으며, RMSEA=.10으로서 적합도 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스키 참가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확인적 요인분석

지수	χ^2/df	CFI	TLI	NFI	RMSEA
모델	102.50/21=4.88	.98	.95	.97	.10
기준	≤3.0	≥.90	≥.90	≥.90	≤.08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지 중 26부를 제외한 376부의 설문지를 SPSS WIN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량,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군집분석, 일원변량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값을 통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스키 참가자들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을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라 분류한 3개 집단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집단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Duncan을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여가제약 협상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수준으로 설정하였다.

4.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의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계수(Cronbach's α)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크롬바 알파계수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 검사 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구하는 신뢰도 추정 방법이다[4]. 아래의 [표 3]은 여가제약 협상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신뢰도 분석

영역	Cronbach's α
여가활동 동반자 탐색 노력	.877
여가활동비 마련 및 시간관리 노력	.857
여가활동 강도 조절 노력	.673
여가활동 기술 습득 노력	.803
여가활동 에너지 충전 노력	.744
여가활동 열망 변화 노력	.696
여가제약 협상 전체	.918
과거경험	.902
인생의 구심성	.868
경제적 투자	.883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전체	.948

[표 3]을 살펴보면 여가제약 협상의 6가지 하위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678~.877 사이에 분포되었고 여가제약 협상 전체는 .918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3가지 하위 요인의 신뢰도 계수 역시 .868~.902 사이에 분포되었고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전체는 .948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III.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여가제약 협상 수준을 상, 중, 하의 3단계로 구분하고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 군집분석

스키 참가자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을 구분하기 위하여 2, 3, 4, 5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3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을 때 각 군집 별로 여가제약 협상 수준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3개 군집의 여가제약 협상 평균과 수준별 인원분포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여가제약 협상 수준 군집분석

	하	중	상
여가제약 협상 평균	2.75	3.39	4.17
사례수(n)	96	179	99

또한 각 군집에 포함되는 사례 수 역시 3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을 때 다른 군집의 분류보다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따르면 여가제약 협상 수준이 가장 낮은 하의 집단은 평균이 2.75로 나타났고, 중간 집단은 3.39, 가장 높은 상의 집단은 4.17로 나타났다. 여가제약 협상 수준별 인원은 가장 낮은 집단이 96명, 중간 집단이 179명, 가장 높은 집단이 99명으로 나타났다.

2.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3가지 하위 요인인 과거경험, 인생의 구심성, 경제적 투자 모두에서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전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

구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거경험		인생의 구심성		경제적 투자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전체	
			M	*SD*	*M*	*SD*	*M*	*SD*	*M*	*SD*
여가제약협상	(a) 상	99	3.44	0.98	2.63	0.96	3.26	1.19	3.16	0.95
	(b) 중	179	3.05	0.97	2.18	0.99	2.57	1.24	2.69	0.96
	(c) 하	96	2.09	0.87	1.53	0.61	1.87	1.06	1.88	0.77
	F값		53.70***		36.73***		33.49***		50.11***	
	Scheffe		a)b)c		a)b)c		a)b)c		a)b)c	

*** p<.001

구체적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요인 중 과거경험은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의 집단에서 평균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중 3.05, 하 2.09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 중, 하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생의 구심성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평균이 상 2.63, 중 2.18, 하 1.53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투자에서는 상 3.26, 중 2.57, 하 1.87의 순서로 나타났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전체의 평균은 상 3.16, 중 2.69, 하 1.88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과거 경험, 인생의 구심성, 경제적 투자,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전체에서 상, 중, 하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여가제약 협상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인과관계

연구대상자를 여가제약 협상의 수준별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 내에서 여가제약 협상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여가제약 협상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

집단	*b*	*SE*	*β*	*t*	R^2
상 (99명)	1.734	.284	.527	6.100***	.277
중 (179명)	1.762	.361	.344	4.879***	.119
하 (96명)	−.418	.326	−.131	−1.280	.017

***p<.001

[표 6]을 살펴보면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의 집단과 중의 집단에서 협상 수준이 증가할수록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상: β=.527, p<.001, 중: β=.344, p<.001).

이에 반해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하의 집단에서는 협상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하: β=−.131, p=n.s.).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과거 여가는 단순히 휴식과 기분전환의 소극적 기능을 담당하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인간본연의 활동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7]. 특히 여가스포츠 참여를 통한 여가선용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의 질을 함께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여가학 분야에서도 여가에 대

한 인식 및 참여 수준의 향상으로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여가제약 협상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가제약 협상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가제약 및 참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6][10][15],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여가제약 협상 수준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인지된 여가제약 협상의 수준별로 대상을 분류하고 여가제약 협상의 강약에 따라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K-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평균 비교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여가제약 협상은 상, 중, 하의 3단계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개인이 경험하는 여가제약 협상에도 강도와 정도가 존재하며 동일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서로 다른 전략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여가제약 협상의 연구에서는 여가제약 협상을 6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요인별 인과관계를 살펴보는데 치우쳐 있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여가제약 협상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그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를 규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여가제약 협상의 수준별 분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과거경험, 인생의 구심성, 경제적 투자 등의 세 가지 요인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은 스키 경력, 빈도, 몰입 정도, 기술 수준이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스키 비시즌 중에도 인터넷이나 서적 등을 통해 꾸준히 스키에 관한 정보와 기술을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키 관련 용품 및 스키에 투자하는 비용 역시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가제약 협상 전략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황선환[1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하위 요인인 과거 경험과 경제적 투자가 여가만족도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황선환 외[16]의 연구와도 연관이 된다. 즉, 적극적으로 여가제약 협상을 활용하는 집단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으며 이는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함께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여가제약 협상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인 여가제약 협상전략의 활용은 여가 참여가 기본 전제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가제약 협상 전략이 참여를 유도한다는 최성범[10]과 Loucks-Atkinson & Mannell[24]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여가제약 협상전략은 여가제약을 극복하여 여가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전략이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수준을 결정짓는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과거경험, 인생의 구심성, 경제적 투자)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스키 참가자들이 당면한 여가제약을 극복하고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이고 다양한 여가제약 협상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여가스포츠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제약에 당면한 개인들이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슬기롭게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여가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결론

본 연구는 스키 참가자들의 여가제약 협상 수준에 따

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와 여가제약 협상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가제약 협상은 전략을 활용하는 강도와 정도에 따라 상, 중, 하의 3단계로 분류가 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둘째, 여가제약 협상의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전체평균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가제약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과거경험, 인생의 구심성, 경제적 투자 등의 요인에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셋째, 여가제약 협상전략의 적극적인 활용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키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운동 종목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종목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살펴보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연구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하위 요인별 수준을 분류하여 하위 요인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김경식, 구경자, 이은주, "여가제약 협상과 진지한 여가, 스포츠활동 전문화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pp.478-488, 2011.

[2] 김경식, 황선환, 원도연, "여가제약 협상전략 척도의 개발과 적용", 한국체육학회지, 제47권, 제3호, pp.365-376, 2008.

[3] 김미량, 김동제, 권창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참여만족 및 행복의 관계: 진지한여가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제51권, 제1호, pp.387-396, 2012.

[4] 김종호, 조욱연, 조성, 황선환, "중국인 유학생의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여가참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8호, pp.428-437, 2011.

[5] 김준, 이근모,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자기결정성, 여가제약 협상, 진지한 여가, 운동지속의 구조모형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5권, 제2호, pp.85-107, 2012.

[6] 오세숙, 신규리, 연분홍, "대학생 성별에 따른 여가정체성 현출성, 협상 효능감 제약협상전략, 참가의도 간의 인과관계 검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6권, 제2호, pp.14-26, 2012.

[7] 이경주, 강은영, "댄스스포츠 동호인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여가태도 및 여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4권, 제3호, pp.55-66, 2010.

[8] 이문진, 이연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동향: 성과와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1호, pp.403-412, 2010.

[9] 전찬수, 김형석, 신승호, 김재훈, "스키어의 라이프스타일 및 참여특성이 스키장 선택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을 대항으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11권, 제4호, pp.47-61, 2005.

[10] 최성범, 한태용,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전략, 여가관여도와 여가참가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1권, 제2호, pp.175-187, 2012.

[11] 황선환, "스키어들의 여가활동 참가정도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40권, pp.811-819, 2010.

[12] 황선환, 김미량,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여가만족도 및 삶의 질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42권, 제1호, pp.1287-1294, 2010.

[13] 황선환, 이문진, "진지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 스키어를 대상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48권, 제6호, pp.393-402, 2009.

[14] 황선환, 이문진, "골프 참가기간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이론 검증: 미국 조지아주 골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6권, 제3호, pp.14-25, 2012.

[15] 황선환, 조욱연, 김미량, “여가제약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 협상전략 적용”, 한국체육학회지, 제50권, 제3호, pp.457-464, 2011.

[16] 황선환, 최홍석, “Testing the mediated effects of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on recreation specialization among alpine skiers”,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36권, 제2호, pp.41-65, 2012.

[17] 황선환, 최홍석, 한승진, “여가제약, 여가제약 협상 및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 스키어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pp.974-983, 2010.

[18] K. Alexandirs, C. Kouthouris, and G, Girgolas,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among motivation, negotiation, and alpine skiing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39, pp.648-667, 2007.

[19] H. Bryan, "Leisure value systems and recreation specialization: The case of trout fisher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9, pp.174-187, 1977.

[20] J. Hubbard and R. Mannell,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Vol.23, pp.145-163, 2001.

[21] E. L. Jackson and V. Rucks,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by junior-high and high-school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3, pp.301-313, 1995.

[22] E. Jackson, D. Crawford, and G. Godbey,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Vol.15, pp.1-11, 1993.

[23] D. E. Little, "Conception of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A response to the Schneider and Wilhelm Stanis coping Model," Leisure Sciences, Vol.29, pp.403-408, 2007.

[24] A. Loucks-Atkinson and R. C. Mannell, "Role of self-efficacy in the constraints negotiation process: The case of individuals with fibromyalgia syndrome," Leisure Sciences, Vol.29, pp.19-36, 2007.

[25] B. L. McFarlane, "Specialization and motivations of birdwatchers," Wildlife Society Bulletin, Vol.22, pp.361-370, 1994.

[26] J. Son, D. Kerstetter, and A. Mowen, "Do age and gender matter in the constraint negotiation of physically active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40, pp.267-289, 2008.

[27] P. Williams and P. Fidgeon, "Addressing anticipation constraint: A case study of potential skiers," Tourism Management, Vol.21, pp.379-393, 2000.

저 자 소 개

황 선 환(Sunhwan Hwang) 정회원

- 2008년 8월 : 미국 조지아대학교 여가학 박사졸업
- 2010년 3월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관심분야> : 여가사회학, 여가심리학, 여가경영, 청소년 캠프

김 종 호(Jongho Kim) 정회원

- 2012년 8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스포츠사회학 박사 졸업
- 현재 : 서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시간강사

<관심분야> : 여가・레크리에이션, 스포츠사회학, 여가사회학